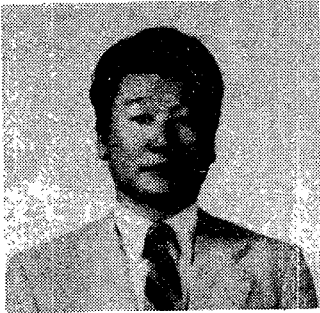


人口의 局地集中에 의한 都市化와 環境保全



李時伯
(서울大 保健大學院 教授)

지금 우리들 記憶속에서 사라져 가는 것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향수를 느끼게 하는 追憶의 대상들이지만 強制로 추방되었기에 보이지도 않고, 느낄수도 없는 것들이 있다.

한밤의 기적소리, 이별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증기기관이며, 시간따라 틀림없이 내리쳐 울리던 교회 종소리, 그리고 푸르고 붉은 염색천을 긴 장대에 너절하게 널어 놓고 꼬마 개구장이들의 숨바꼭질 놀음터가 되었던 동네 한복판의 염색공장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전에는 검은 석탄 연기를 뿜으며 칙칙뽀뽀 도시 한복판을 가로질러 달리는 열차가 있었던들, 교회 종소리가 더러는 좀 심히 울렸던들, 아니면 염색공장의 시꺼먼 물이 동네 하수구를 메웠던들 그때 우리는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았으며 또 불만도 크게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이것들을 옆에 두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할만큼 짜증나게 되었으니 도대체 언제부터 그랬단 말인가? 옆집의 피아노 소리도 귀찮고 공터에서 쓰레기조차 불태우기에 눈치보이는 원인이 무엇이란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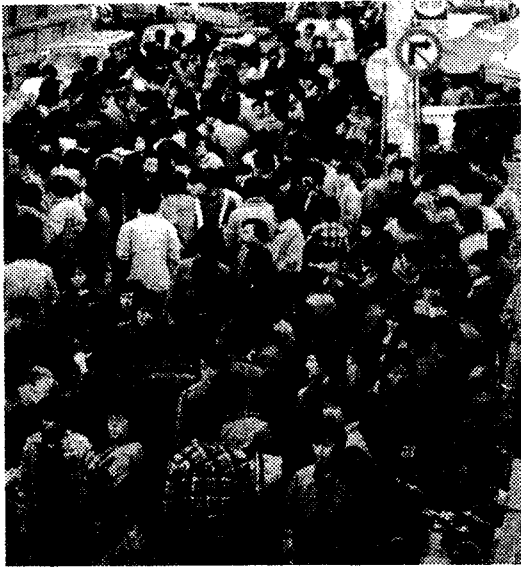
이것 저것 짜증나는 일이 많고 보니 오늘날에는 음악소리도 크게 나면 안되고 落葉을 태우는 검은 연기는 더더구나 조심스럽다는 지경으로 되었으니, 석탄연기나 교회종소리, 아니면 염색공장의 폐수등은 저리로 가야할 형편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1960년대 이후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들을 우리 주변에서 몰아내기 작전을 편 것은 1970년대 이후, 소위 公害라는 이름으로 강제 추방키로 작정한 것이 아니었나 싶다. 왜 그렇게 해야만 되었을까? 대답은 긴 말 필요없이 간

“

60년대 이후 産業化와 더불어 부수적산물의 産業公害가 야기되었고 또 「人間公害」라는 문제도 노출되었다.

”

단하다. 1960년대 이후 工業化에 의한 副産物로 우리의 금수강산이 나날이 훼손되어 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工業地를 향해 급속히 모여든 人口는 마침내 産業公害보다 더 가속화된 人間公害로 둔갑하여 실상가상으로 이것들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의 自然은 재생불능으로 만들만큼 크게 파손되어가고 있었기 때



環境汚染의 원흉을 産業社會化에 돌릴 것이 아니라 人間の 集中에 의한 人口과잉의 문제에 그 초점을 맞추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문이었다. 공장폐수를 정화하고 매연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工業化에서 오는 環境오염을

막자는 뜻이며 교회와 종소리나 이웃집의 피아노 소리조차도 막아야 한다는 이유는 인구가 밀집된 住居空間 속에서 생활소음을 최소화 시키므로써 인구의 과밀에서 생긴 人間公害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뜻으로 각각 해석된 것이다.

人口의 局地集中-과밀된 도시인구 때문에 생긴 環境오염은 産業化에 의한 피해에 못지 않게 아니면 더욱 큰 몫으로 여러면에서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형편임을 지난날 생긴 일들을 관찰함으로써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예로서 서울을 보자. 한강물이 서울시민을 위한 상수도 수원지로 쓰이던 때, 그리고 한강줄기 어느 곳에서나 여름 한철 수영장으로 훌륭했던 시절이 그렇게 먼 옛날이 아니었는데 아직도 증병에서 완쾌되지 못한 탕은 서울이 工業地域으로서 産業公害 때문에 생긴 핑계로만 넘길 수 없고 이에 대한 보다 중요한 원인은 서울이 초대형 도시로 인구가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어 이로 인한 人間公害의 副産物이 너무 지독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60년대 초의 서울시민의 수는 300만 정도였다. 당시 300만 인구의 서울은 오늘날과 같은 구체적인 공해대책이 없었던 때였지만 한강 汚染이 그렇게 심한 형편이 아니었다. 오늘날은 많은 공해예방대책이나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해가 더욱 심각한 처지에 놓인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온 서울시 人口가 누적적으로 公害를 유도하여 빠른 속도로 한강을 신음하게 만든 것이 틀림없다. 한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오물의 양은 대변, 소변, 생활하수

“

서울의 경우, 아니 漢江의 경우 불과 수
년 전만하여도 어느곳에서나 수영을 할 수
있던 추억의 江이 지금은 중병을 앓고 있다.
이는 産業公害때문이라기 보다 人間公害
라고...

”

그리고 기타 고체폐기물 등을 몽땅 합쳐 평균 4키
로그램이라고 하니 서울시민이 하루에 오물을
4,000 만 킬로그램을 버리는 셈이 된다. 이것
은 2톤 추력 2만대가 실어 날라야 할 어마
어마한 양인지라 만일 처리가 불비한 상태로서
는 한강이, 아니 그 어느것도 금방 병을 앓기
십상일 수 밖에 없다. 한강만이 아니다. 서
울의 공기가 얼마나 나쁜지는 이미 여러차례 사
회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 그 원인이야 말할
것도 없이 서울시민 1,000 만 명을 수송(일일

아무리 해 보았자 급증해가는 인구와 이로 인
해 넘쳐흐르는 人間公害의 副産物때문에 매년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속수무책일 수

서울市民이 하루에 버리는 汚物은 4,000만kg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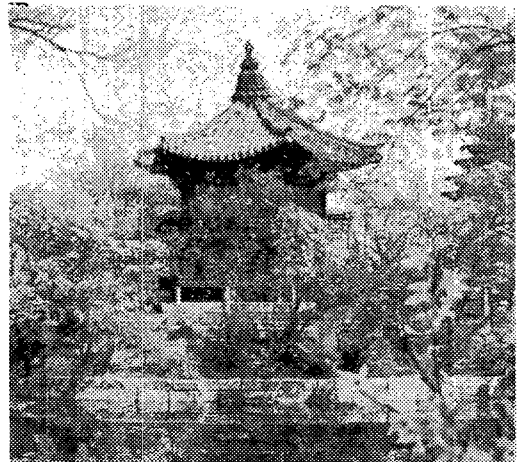
밖에 없다. 어디 서울뿐이겠는가? 우리나라
모든 지역, 반드시 대도시만이 아니더라도 인
구가 급증한 어느지역에서나 알게 모르게 비슷
한 현상이 누적되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各地域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人間公害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아니 서울의
경험을 거울삼아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
이다. 그래서 「인구증가로 인한 都市化와 환
경오염은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말을 숙명적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제기된 환경오염문제는
2,000 년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크나큰 과제다.
(사진은 본협회의 가두캠페인)〉

이동 인구는 2,000 만명 이상)하고 있는 수많
은 교통차량의 배기가스와 이들 차량 및 일일
경제활동인구가 대이동을 할때 발생한 먼지가
합쳐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자명한
일이다. 결국 인구급증이 문제인 셈이다.

그래서 각종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공장폐기
물, 차량배기가스, 생활하수등에 대한 처리를



”

한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汚物의 양은 대변, 소변, 생활하수 그리고 기타 廢棄物등을 몽땅 합쳐 4kg이라고 한다.

“

으로 받아들이 필요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人間의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파괴된 환경과 自然에 진 빚을 이제부터라도 성실하게 갚아야겠다는 태도만 갖추어 진다면 우리의 자연은 얼마든지 잘 保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스위스」의 「제네바」시가지를 가로질러 내려가는 하천은 바로 시내 건물과 건물사이를 지나며 생활하수를 받아 흐르고 있지만 玉水같이 맑고 티없이 깨끗한데 그가운데 물고기가 떼를지어 다니는 모습에는 정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河川汚染防止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고기까지 놀

고있단 말인가? 역사도 긴 그 도시에 인구가 증가하여 그만큼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도시이건만 상상을 초월한 완벽한 자연보존은 인간승리의 소산임에 틀림없다. 이것이 바로 自然에 대한 人間의 성실한 태도의 결과라 하겠다.

이제부터는 환경오염의 원흉을 産業社會化에만 돌릴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人間의 활동으로 구체화 시켜야 할 터인즉, 人口의 과잉 내지 과도한 집중을 막아야 한다. 아니면 自然을 존중하는 人間의 성실한 태도가 먼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

의식개혁 9대실천요강

정직 모든 생활은 정직에 원칙을 두고 새시대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불신풍조를 과감히 추방한다.

질서 모든 생활의 기초를 질서에 두고 이를 체질화하기 위해 국민적 역량을 최대한 경주한다.

창조 왜곡된 미풍양속의 본질을 되찾아 민족정기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

책임 모든 공직자는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무사안일등 고질적인 폐습에서 탈피, 스스로를 철저히 책임지는 풍토를 확립한다.

본분 각자가 자기본분에 충실하고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분수 생활주변의 고질화된 각종 낭비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분수에 맞는 생활자세를 정립한다.

주인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부정·비리와 무질서에 대한 건전한 고발정신을 함양한다.

국민화합 지나친 이기주의와 뿌리깊은 파벌, 연고의식을 철저히 불식함으로써 국민화합의 기반을 확충한다.

가정교육 모든 교육은 가정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